



근대화 산업 유적지의 장소성과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건축물인 '세이렌소' 내부 모습.



지난 2007년 일본 근대화산업유적지로 지정된 제련소를 예술가들의 감성과 자연에너지로 점목시킨 이누지마 아트 프로젝트의 '세이렌소' 전경. 매년 70여 만명이 찾는 세토나िका이의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누지마=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 ‘문화수도 광주’ 성공 프로젝트 <6>

(1부) 킬러 콘텐츠를 만들자

5 광주 폴리

## 거장들 작품에 공감대 입혀 명품건축 순례길로



실제로 영업하는 목욕탕을 소재로 온갖 잡동사니를 붙여 나오시마의 명물로 탈바꿈한 'I ♥ 湯'



광주시 동구 장동 로타리에 세워진 후안 헤레로스의 '소통의 원두막'

일본 시코쿠 세토나िका이(瀬戸内海)에 위치한 이누지마(犬島). 나오시마 섬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가면 닿을 수 있는, 면적 0.54km의 작은 섬이다. 지금은 쇠락한 이누지마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1909년 구리 제련소가 세워지면서 일본 전역에서 3000 명이 몰려 들었다. 하지만 구리 가격의 대폭락으로 10년 만에 제련소는 폐쇄되고 채석업마저 쇠퇴하면서 인구 55명, 평균연령 73세의 몰락한 섬이 되고 말았다. 지도상에서나 만날 수 있던 이누지마를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낸 건 일본의 교육기업 '베네세'재단의 후쿠다케 소이치 회장이었다. 1987년 이누지마 인근의 버려진 섬 나오시마(直島)를

작품·장소 선정 등 시민들과 소통 부재  
좁은 인도 보행권 위협...애물단지 전략  
예향 정체성 담고 상설 프로그램 등 개발  
글로벌 명소 키운 '나오시마 기적' 광주로

현대건축과 미술의 복합공간으로 변신시켜 글로벌 관광 명소로 키운 그는 또 한번의 '나오시마 기적' (광주일보 6월22일 9면)을 재현해내고 싶었다. 지난 2007년 이누지마 제련소 터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근대화산업유산군'의 하나로 지정되자 새로운 이누지마 아트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겼다. 지난 2008년 4월 공개한 '세이렌소(精錬所)'가 바로 첫 작업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누지마의 근대화산업유산인 유구(遺構)를 보존·재생하는 동시에 자연 에너지를 이용해 환경에 부하를 주지 않는 '건축(산부이치 히로시), 그와 상생하는 '현대미술'(야나기 유키노리), 그리고 '환경' 시스템(오카야마대학 환경이공학부)이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창조 모델이다. 말하자면 자연

에너지와 이누지마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섬 지형이나 근대화산업유산을 이용해 공기를 차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는 시스템을 갖춘 건물을 완공한 것이다. 후쿠다케 소이치 회장이 이누지마의 재생에서 가장 중시했던 건 소통이었다. 그는 "지역의 재생과 창조는 주민들의 협력과 지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면서 수십 여차례 지역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누지마 프로젝트는 인근의 나오시마 지주 미술관, 이에(家) 프로젝트와 함께 세토나िका이를 대표하는 명물이 됐다. 이에 프로젝트는 이사를 가거나 너무 오래돼 사람이 살수 없게 된 나오시마 섬의 빈집 7곳을 예술작품으로 되살려 낸 작업이다. 바둑을 두던 기원, 제사를 지내던 신사, 치과의사의 집 등이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되살아 났다. 200여 년 이상 오래된 집들이 늘어난 마을길은 관광객들을 시간 여행으로 이끈다. 특히 실제로 영업을 하는 목욕탕을 소재로 목욕과 관련된 온갖 잡동사니를 건물 안팎에 붙인 'I ♥ 湯'(아이 러브 목욕탕)은 이에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 이를 이누지마와 이에 프로젝트 덕분에 세토나िका이는 매년 전 세계에서 70만 명이 찾는 일본의 떠오르는 관광지가 됐다. 이들 프로젝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폴리를 떠올리게 한다. 광주의 대표 아이콘이자 문화관광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제4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위치선정과 관리, 운영 등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폴리는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총 28억 원을 들여 광주읍성과 푸른길 등 광주시내 11곳에 설치한 건축조형물. 후안 헤레로스(스페인), 플로리안 베이겔(독일), 나데르 테라니(미국), 알레한드로 자에라(스페인), 도미니크 페로(프랑스), 조성룡, 프란시스코 산인(미국)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끌어들이는 스타마케팅을 내세워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참여작가의 명성에만 기댄 나머지 장소선정에서부터 작품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와의 소통은 간과했다. 그 결과 11개의 폴리 가운데 장동로 타리의 '소통의 원두막', 구시청 사거리의 '열린 공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낙서장으로 전락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유명건축가들의 '분신'임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설치되면서 보행권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취급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주최로 열린 '광주폴리 이대로 좋은가' 시민포럼에서도 이같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올해 추진될 예정인 광주폴리 2차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거둬야 한다"면서 "장소선정에서부터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잠정보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광주폴리는 건축물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1차 프로젝트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개선한다면 폴리를 통해 연간 800만 명이 다녀가는 프랑스의 라빌레트 공원과 같은 '신화'를 광주에서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2차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폴리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광주의 정체성·역사상·장소성과의 조화 ▲사업추진과 관리주체의 일원화 ▲그리기 대회·공연·퍼포먼스 등 상설 프로그램 개발 ▲사후관리 강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건축가 민현식 전 한국예술종합학교(건축과) 교수는 "광주폴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타작가 보다는 '장소'의 의미를 예술로 극대화 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가칭 '폴리를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폴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누지마와 이에 프로젝트가 일본을 넘어 '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화의 미학이다. 교통표지판 하나, 자전거 보관함 하나도 주변과 어울리는 예술적 감각으로 설치해 신선한 감동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도시를 조직하는 거창한 구호보다 광주의 역사와 추억이 스며있는 공간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재생시키는 것이야말로 광주폴리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의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사락 www.geumsoojang.com